

지역 주산작목 정착을 위한 사례연구

— 문경군 염장오이 단지를 중심으로 —

이상진* · 김승희** · 권영목**

(*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 문경군 농촌지도소)

A Study on The settlement of Regional Main Products

— A case study of salted Cucumber at Mun-Gyeong County Kyongsang buk-do Korea —

* Lee, Sang-Jin · ** Kim, Seung-Hyi · ** Kwun, Young-Muk

* R. D. A. Suwon 441-100, Korea.

** Office of Rural Extension Service Mun-Gyeong County Jeom chon, 744-030, Korea.

Abstract

If we want agriculture to be competitive industry, It is necessary to optimize the farming size of estate, specialize the technology and process the products in the estate.

The case of salted cucumber processing estate at Mun-Gyeong County is the good example that it was countributed development of region by the processing of the products, increasing the valye-added the products, Creating the employment oportuni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ie of the above sucessful case and to extend other agricultural area in Republic of Korea.

I. 서 론

1. 연구의 개요

가. 연구의 필요성

농산물 貿易自由化의 압력이 GATT 體制를 통하여 강하게 밀어 닥치고 있는 요즘 比較優位論을 앞세운 일부 경제학자들 중에는 외국 농산물의 수입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資源의 效率的 利用과 雇傭增大의 側面 및 國土 保存管理 次元에서 농업을 현대화하여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여야 하며, 특히 인간 기본의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면에서 단순히 市場經濟 論理로만 농업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번 무너진 농업기반을 다시 구축하기란 너무나 많은 세월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며, 食糧의 武器化 趨勢에 있는 국제 환경속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기본 식품을 경제적 價値로만 換算한다면 市場失敗를 범할 여지가 많다.

농업이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規模化가 되어야 하나, 우리의 국토 사정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높은 기술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만이 해결책이라고 보며,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자면 작목이 안정되어야 하고, 자연적 조건에 맞는 지역 주산작목의 정착은 시급히 해결하여야 될 과제이다.

나. 연구의 목적

우리의 농업이 상업농으로 전환되어 量的生産에서 質的生産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지만, 농산물 가격의 변동과 現

金化의 難易에 따라 재배면적 및 잦은 作物轉換으로 생산량의 과잉, 과소로 需給不均衡을 초래하여 생산물 가격의 騰落을 자초함은 물론 생산 기술의 축적이 어려운 실정이며, 따라서 高品質 規格化가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농산물의 소비자인 우리 국민의 식생활 소비문화는 크게 변화하여 소득향상에 따른 생활의 편의성 추구, 주거형태의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젊은 세대의 식습관 변화와 같은 경제·사회적 여건변화는 加工食品의 需要를 增加시키고 있다.

가공식품의 개발생산은 농산물의 과잉생산시 剩餘物量 吸收效果와 過少生産시 부족분을 공급하는 貯藏機能으로 농산물의 價格安定에 기여할 수 있으며, 가공은 소비자욕구에 부응하고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규격화는 농업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며, 前·後方 關聯産業의 活性化에 의한 생산성 증대와 고용기회 확대로 농외소득도 올릴 수 있는 一石二鳥의 효과가 있다.

따라서 적지적작의 지역 주산작목 선택으로 양질의 원료를 생산하고 식품가공까지 연계하여 지역 특산품을 개발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사례를 분석하여 지역 주산작목 정착에서 지역 특산품으로 개발하기까지의 성공요인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함으로써 開放化 時代에 能動的으로 對處하고, 타 지역에 波及效果를 기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주산작목의 단지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농업의 문제점으로 표출되는 규모의 영세성을 탈피하여 농업기술의 蓄積과 專門化에 의한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規格化만이 급속히 변화되는 시장 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으며, 각종 정보의 신속한 분산으로 농민들의 취약부분인 市場 交渉力을 강화하여 농가소득의 안정 및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 주산작목을 가공과 연계시켜 생산단계에서부터 양질의 가공원료를 안정된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수송비의 절감과 농촌 유희노동력 활용에 의한 생산원가 절감으로 상품의 가격과 품질면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또한 재배면적 변화 및 豊凶에 따른 가격조절 기능까지 예상되어, 생산자와 소비자의 동시보호가 가능하며 농촌 지역에 가공공장 입지로 관련산업의 발전과 고용기회 창출에 의한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으므로 사례지역인 경북

문경군의 지역여건과 염장오이 단지조성 동기 및 추진과정을 고찰하여 地域 主産作物의 團地化 要因을 定立하고, 契約業體인 두메식품의 가공공장 설립부터 운영내용 및 주민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며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문헌연구로는 현재까지 혼돈되어 사용되고 있는 主産地, 地域 主産作物, 特化作目的 概念을 定議하고, 지역 주산작목 정착의 필요성을 농업생산 變動要因, 농산물 가격의 안정, 기술의 전문화, 개방화 대응면에서 살펴보고 농산물 가공산업과 連繫의 필요성 및 주산작목 단지화와 농업구조 개선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또한 지역 加工産業 誘置와 地域開發, 雇傭機會 創出, 農外所得 向上과의 關係, 주산단지 현황, 가공실태를 분석하였다.

조사 연구로는 1경북 문경군의 염장오이 단지1을 사례지역으로 하여 단지의 구성 및 추진경위를 작목의 選擇動機, 定着 過程, 契約栽培, 生産協議體構成, 재배과정에서 출하까지의 과정을 조사하였으며, 가공부분은 계약업체인 두메식품 설립동기와 운영, 원료의 수집부터 제품과 과정을 조사하고 物流의 흐름과 부가가치 증대 상황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조사농가는 團地化의 有利性을 비교하기 위하여 문경군 염장오이 단지농가 105호와 인근 개별재배농가(상주, 예천군 오이 재배농가)100호 및 가공 산업의 필요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반농가 100호를 설문 조사하였다.

3. 작목의 단지화와 농촌의 구조개선

가. 地域 主産作物과 加工의 意義

1) 地域 主産作物

主産地라함은 어떤 작목이 타지역에 비해 多量栽培되거나 生産되는 地域을 의미하며 自然的, 社會的 環境條件에 影響을 받아서 形成되어 왔으며 特産地의 概念과 混沌되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物量的인 면만을 重視하고 있는 주산지 개념은 增産 일변도의 量的 擴大가 강조되므로 작목의 多樣性과 品質競爭의 商業農時代에 있어서는 농가소득 保障의 代案이 되지 못하고 있다.

本考에서는 비록 생산 규모는 작더라도 지역에 중요한 산업으로 開發 可能性이 크고 고품질의 상품생산이 가능하여 特産品化 할 수 있으며, 質的 競爭에서 比較優位를 점할 수

있는 작목으로서 栽培規模의 急激한 變化없이 安定的인 農家 所得源이 되는 작목을 地域 主産作目이라 하고자 한다.

2) 農産物 加工

경제사회의 발전과 都市化의 進展에 따라 우리 국민의 생활 문화가 크게 변화되고 있다. 國民 所得의 增加는 食生活의 便宜性, 住居環境의 變化, 젊은 세대의 食習慣 變化를 同伴하고 있으며 특히 女性의 社會參與 擴大는 調理時間 短縮을 위해 加工食品을 選好하게 되었고 앞으로 高級化, 多樣化된 가공식품 消費의 急激한 增加가 豫想된다.

그러나 우리 농산물의 加工率은 선진국의 60~90%에 비해 극히 미미한 실정이며, 원료조달 측면에서 국내 농업과의 연계가 빈약하여 수입을 통한 海外 依存度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 농업기반의 상당부분이 잠식되고 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 주산작목 단지와 가공산업의 연계육성은 농업생산기반유지를 위해 절대적 필요성이 있으며, 加工産業部分에는 原料의 安定的 確保와 신선한 상태에서 가공하므로서 고품질 식품생산이 가능하고 수송, 보관 등의 유리성과 농촌 노동력 활용은 생산 원가를 낮춤으로 경쟁력을 부여하며, 農産物 流通部分에서 가공의 단계에 따라 이용방법이 달라지고 있는 消費形態의 變化에 부응한 제품의 생산으로 새 需要 創出의 促進에서 意義를 찾을 수 있다.

나. 地域 農産物 主産地 및 加工實態

1) 生産實態

조사지역의 농림수산물 주산단지 고시사항을 살펴보면 문경군이 고추(588ha), 마늘(263), 사과(877ha), 잠업 등 4개 작목이며, 상주군이 고추(1,116ha), 시설채소(42)를 비롯한 7개 작목, 예천군이 고추(1,462ha)를 비롯한 7개작목이 고시되어 있다.

이를 분석해 보면 지역적으로 이 3개지역은 小白山脈 남쪽 구릉지와, 洛東江 연변으로 기후와 토질이 비슷함에도 사례지역은 비교지역에 비해 鑛産業 中心의 經濟圈 形成으로 농업의 分化가 적으며, 판매가 쉽고 위험부담이 적은 농산물 생산에 치중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地域 主産作目 栽培實態를 보면 사례지역이 초당옥수수, 오이, 수박, 인삼, 약초 등 5개 작목으로 栽培規模의 差異를 제외하고는 주산단지와 相互 補完關係를 유지하며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加工實態

조사지역의 제조업체는 공업분류법에 근거한 9개업종 106개 업체가 있으나 대부분 종업원 50인 이하의 영세업체이고 생산품목의 역시 임가공, 단순가공에 그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미미한 실정이다.

그중 식품제조업체는 21개이며 농산물 가공업체는 11개소가 가동중이나 6개업체가 단순 가공인 도정업이다.

地域原料를 調達하여 加工하는 比率이 50%이상인 業體를 지역 주산작목과 가공이 連繫 되었다고 볼 때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가동중인 업체는 3개소에 불과하며, 지역내에 입지한 가공공장도 외지원료를 활용했던 상주참기름공장과 7개업체는 휴업중에 있음을 볼 때, 加工産業의 特性上(原料 依存性, 勞動 集約性, 技術性) 지역 주산작목과의 연계가 성공의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다. 農村構造改善 및 地域發展

1) 地域 主産作目과 農村構造改善

사례지역의 농업구조를 보면 판매가 쉬운 정부 수매작목(예:미곡, 엽연초)에 편중되어 있어 농가소득 향상의 제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산작목 단지가 정착되면 生産의 專門化를 이룰 수 있고 가공과의 연계로 농가에서 가장 큰 隘路要因인 판매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므로서 지속적인 생산기반 확보가 가능하고 부가가치 증대와 고용기회 확대로 농업 및 농외소득 향상을 기할 수 있어 지역 농업의 구조가 다양하게 변화되며 농가의 소득구조도 개선될 수 있다.

2) 農産物 加工과 地域發展

지역 발전은 주거환경을 비롯한 생활여건의 개선을 우선하는 경향이 많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住民의 所得向上이 優先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농산물 가공산업의 地域內 입지는 농외소득과 농업소득의 기반을 내실화 할 수 있으며, 설문에서도 농산물 가공공장의 입지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이 89%로서 可視的 개발보다는 內實을, 大單位 개발사업보다는 小地域 중심의 基盤 形成에 重點을 둬서 優先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농업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省力化, 機械化로 節減된 勞動力을 加工産業에 活用함으로써 농업의 潛在 失業 解消로 勞動生産性 向上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설문결과로 취업희망에 대하여 81%가 희망하고 있으며, 7%는 연간계속 취업을 희망하고 있음을 볼 때 加工産業의 地域內 입지가 地域 發展에 寄與度가 클 것으로 기대 된다.

3) 前·後方 産業의 連繫

1차산업인 농업과 2차산업인 가공업을 연계하면 자연조건 및 경제·사회적 요인과 관련되어 不確實性이 큰 농업을 기술전문화로 농산물 생산의 변동요인을 극복할 수 있으며 가공품의 생산은 季節的, 地域的 需給 不均衡을 緩和 시킴으로서 가격안정 효과가 크고, 부가가치 증대 및 고용기회 창출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所得格差에 기인한 離農現象을 防止 할 뿐 아니라 인구의 U-Turn 現象도 豫想 되어 도·공간 산업 및 인구의 적정배치로 國土의 均衡發展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II. 지역 주산작목 정착사례

1. 사례지역의 일반현황

문경군은 소백산맥 남쪽에 위치한 낙동강 연변 내륙분지로 평균강우량 1,159mm 평균 기온 12.4℃로서 온화한 기후이나 일교차가 큰 편이며 무상일수는 211일 정도이다.

중추산업이었던 광산업의 사양화는 심한 인구의 감소를 가져왔고 지역경제 침체는 농업분야의 중요도를 점차 높여 주고 있으며 호당 경지규모는 1.07ha로서 전국 평균치 보다 낮다.

2. 지역 주산작목 단지화 과정

가. 團地의 組織

사례지역 염장오이 단지화의 과정을 살펴보면 '86년도 이전 지역에서 소득작목으로 광범위하게 재배되고 있던 담배의 후작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농민과 관계기관의 공동인식하에 여러가지 작목을 시험하던 중 담배수확후 남은 줄기를 지주로 활용한 오이栽培 先導農家 5호를 選定하여 시도한 결과 단작에 비하여 206%의 고소득을 올리게 되었고 '87년에는 3.1ha로 확대 되었으나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으로 수확 포기 사례까지 발생하였다.

이것은 개별재배의 경우 선별, 포장, 판매의 경험부족과 시장정보의 부족으로 판로 불안정이 작목의 도입과 재배의

안정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설문에서도 단지화의 유리성에 대해 69.5%가 판매에 유리함을 들었고 오이 재배 과정의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서 단지의 농가는 판매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을 볼 때 團地化가 이룩되면 市場交涉力이 強化되어 농민들의 작목 선정시 가장 큰 不安 要素인 販賣의 不確實性이 解消되므로 안정된 판로의 확보가 團地化의 促進要素가 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소비지 시장과의 원거리 및 시장교섭력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가공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지역내에 소재한 청국장 제조업체인 두메식품에 절임오이 가공 참여를 권유하여 과잉생산된 물량을 소화시켰다.

사례지역에서 생산된 오이는 내륙지방의 일교차가 큰 기후조건으로 조직이 치밀하고 감미가 높은 양질품으로 재배 지역에서 직접 수송 가공하므로써 생산제품의 우수성이 신속히 전파되어 소비자의 인기가 높아졌고 안정적 물량확보를 위해 대단위 단지조성이 필요하게 되어 년차적으로 확대된 결과 '93년에는 255호의 농가가 45ha를 재배하였으며 금후 200ha의 단지를 완성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단지운영의 내부적인 요인을 분석코자 단지 활성화의 요인을 설문한바 현신적 지도자의 육성과 참여농가의 협동심을 들고 있으며(65.7%) 협약사항 준수를 위해 강제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단지의 구성과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신적인 지도자 아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민주적 운영이 관건임을 알 수 있다.

나. 契約栽培

지역 주산작목 정착의 요인으로 농가의 소득보장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판매의 보장을 통한 재배면적의 안정이 필요하다.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가공업자와 농가간의 계약재배를 가장 선호했다(94.3%). 事前에 價格, 物量 등을 契約하므로써 생산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어 技術의 專門化가 促進되었고 勞動力과 農資材의 適切한 配分, 團地內 協業으로 인한 生産費 節減 및 出荷費用 輕減으로 所得保障이 確實했으며 加工工場에서는 安定的인 物量確保와 均一한 品質의 原料를 迅速히 加工處理 하므로써 企業運營의 原價節減과 製品의 品質向上으로 競爭力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契約의 方法은 事前契約으로 겨울철 농한기에 영농교육을 마친후 生産協議體에서 계약조건을 명시한 서면 계약으로 했으며 대금의 지불은 선도금, 중도금을 농가의 자금수

요기에 지급하고 納品 完了後 最終精算에서 목돈을 支拂하는 形式을 갖추었다.

설문결과에서도 계약재배의 유리성에 대해 89.5%가 가격변동에 따른 危險負擔의 減少를 들고 있으며 契約의 信賴度에 대하여 단지내에서는 93.4%가 긍정적인 반면 단지의 농가는 56%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음을 보면 단지화의 경우 완전계약 재배가 정착단계에 있어 효과적 운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生産協議體의 構成 및 運營

相互 契約에 의한 농가와 가공업체 사이에는 生産者와 購買者라는 입장의 차이에서 오는 相反된 理解關係가 存在한다. 그러나 이 兩者는 原料의 供給者와 生産物의 消化處라는 共同的의 利益이 優先됨을 認識하고 團地 活性化를 위한 仲裁 및 調整機構의 필요성에 따라 生産협체의 體를 構成하여 內실화 함으로서 상호 이익을 위한 役活分擔으로 “문경 莖장오이”를 명산품화 하는 長期的 目標을 成就하는 效果를 올리고 있다.

구성상황은 읍면단위에 참여 농민으로 構成한 生産協議會, 군단위에 生産협의회 임원, 가공업체 대표1인, 판매업체 대표 1인, 회장단 5명, 지도기관 간사 2명으로 構成한 運營協議會와 행정, 지도, 농협관계자로 構成한 支援協議會의 3 단계로 構成했고 운영의 내용은 契約 締結과 履行, 隘路要因의 仲裁, 재배기술의 신속한 전파 등 작목단지 정착의 전반적인 계획과 조정, 문제점의 해결에 중점을 두었다.

협회의구의 필요성을 설문한 결과 단지내 참여농가의 경우 91.4%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으며 단지외의 농가도 86%가 필요한 기구라고 인정하고 있음은 構成員의 意思調整과 統一에 效果的인 方案임을 보여주고 있다.

라. 團地의 運營

1) 栽培部分

재배부분의 技術적인 내용과 일반사항은 記述을 省略하며 중요 사항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栽培作目的 安定度를 糾明하기 위해 재배규모의 決定要因을 설문한바 단지내는 노동력의 범위내에서가 65%이며 단지외에서는 전년도의 가격에 의한 면적의 가감이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면적의 증감희망에 대해서 단지내는 73%가 현규모 유지 내지는 확대로 응답하고 있어 안정적이며, 단지외는 전년도 시세에 따른 면적 결정으로 농산물 가격 파동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단지화가

정착되면 재배면적과 작목의 안정도가 높아진다.

주된 技術情報의 求得處에 대해서 단지내는 공공기관의 지도를 65.7%, 단지외는 독농가, 이웃이 40%로 응답하고 있어 신뢰성 있는 새로운 기술의 신속한 제공이 주산작목단지의 정착에 주요 했음이 인정되고 있다.

2) 販賣部分

판매부분에 대해서는 完全契約인 事例團地와 比較地域을 相互 比較함이 큰 意味가 없으나 오이 재배의 가장 큰 隘路要因으로 販賣를 들고 있는 바 團地外를 中心으로 설문한 결과, 상품화율을 높이기 위한 선별작업에 대하여 94%가 선별후 판매하고 있음을 응답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선별 방법은 95%의 농가가 크기 및 모양 기준이며 자신의 경험과 이웃의 선별을 따라 선별하고 있음이 37%로서 選別規格이 未定着 되었고, 특히 標準出荷 規格 認知度에 대해 50% 이상이 모른다고 응답하고 있음은 농민의 주관적 기준에 의함으로 판매과정에서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단지화가 되면 상업농 시대의 필수적 요소인 농산물의 規格化가 迅速히 定着될 수 있을 것이다.

流通情報의 利用實態를 설문한 바 70%의 농가가 非公式的 流通情報에 依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57%의 농가가 유통정보 부족과 오류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 바 효율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情報傳達體系의 確立이 要求되고 있다.

3) 加工

가공은 지역 주산작목 단지 정착과정에서 團地 生産물의 最終購買源이며 附加價値 創出의 매우 重要的 役活을 擔當한다.

사례지역 莖장오이 가공의 概況을 살펴보면 지역내인 문경군 농암면에 가공시설 500평, 고용인원 年雇39명, 季節雇 140명이며 생산량은 莖장오이 1,600M/T, 청국장200M/T이다.

산지가공 연계의 장점으로 원료재배 과정에서 부터 品質管理가 이루어 졌고 생산포장에서 선별된 原料를 直接輸送하여 新鮮狀態로 加工함으로서 高品質 製品生産이 가능했으며 안정된 가격에 충분한 소요량을 확보했고, 수송비를 비롯한 생산원가 절감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았으며, 技能人力의 確保에 有利性이 있음을 들 수 있다.

가공의 일반사항과 工程은 記述을 省略하며, 特異한 事例로 생산된 제품의 판매는 동종의 품목을 생산하지 않는 데

기업인 하선정종합식품과 販賣源 協定을 맺고 전국 유통망을 활용하므로서 시장개척과 관로의 안정, 운영자금 지원 등 소기업으로서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시켰다.

이렇게 생산작목단지와 가공산업을 連繫 育成한 結果를 갖고 설문한 바 97%의 농가가 지역농산물 가공공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산지공장의 입지가 관로의 안정 57% 지역개발 촉진 29%, 농외소득 향상에 14%가 유리 할 것으로 응답하고 있어 작목의 안정, 就業機會 擴大와 地域開發 促進效果가 높아짐을 인식하고 있다.

農業部分에서 지역 농산물 加工産業 誘置가 原料作目 團地 定着에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해 97%가 긍정적 응답을 하고 있음을 볼 때 결과적으로 재배면적의 안정으로 가격변동 요인이 제거되므로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同時 保護가 可能함을 認知할 수 있다.

3. 소득구조의 변화 및 단지화 요인

가. 所得構造의 變化

조사지역 소득조사 결과 생산된 오이의 農家 受取價格, 出荷費用, 出荷活動을 위한 勞動時間의 消耗 등을 綜合하여 分析했을 때 實質所得이 사례지역에서 115.5천원/10a 높게 나타났으며, 가공을 연계한 계약재배로 所得目標가 鮮明하여 資本과 勞動力, 機資材의 效率의 配分 및 活用으로 農業經營의 有利性이 增大되었고, 26%의 經營費 節減 및 재배기술의 專門化와 수확 및 판매시기를 달리하는 작목의 도입과 안정 재배로 상승된 農家經濟 剩餘가 生産에 再投資되어 農家所得 構造가 急激히 變化되었다.

나. 團地化의 要因

1) 定着要因

생산농민과 가공업자가 상호 협력하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품질 좋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상품의 생산과 안정적인 공급, 적정이윤 추구로 가격의 안정을 통한 소비자 가계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새수요의 창출로 재생산이 촉진되는 등 농민, 가공업자, 판매업자, 소비자 모두에게 공동이익이 되는 기반위에서 단지화의 성공이 보장됨을 인식해야 한다.

사례지역의 지역 주산작목단지 정착과정에서 나타난 성공요인을 요약하면

〈生産部門〉

作目 導入 및 團地造成의 必要性 共通認識
協議體 構成을 통한 意思調整 및 統一
作付體系의 安定
完全 契約栽培 實施
作目選擇과 新技術 導入
農業所得 基盤의 造成 - 團地의 永續性 賦與

〈加工部門〉

良質의 原料, 勞動力 確保의 有利性
販賣源의 加工技術 支援
企業運營의 合理化 - 復合品目 生産

〈販賣部門〉

販賣源確保 - 大企業과의 販賣 提携
製品의 弘報 強化

〈關係機關〉

積極的인 育成策 - 行政, 技術, 金融의 綜合的 支援

2) 沮害 要因

지역 주산작목 단지의 정착을 위해서는 沮害要因을 事前 除去하는 것이 成功要因 못지않게 중요하다.

〈生産部門〉

適正 植付面積 決定, 出荷 調整의 隘路
選別에 따른 差等價格制 適用

〈加工部門〉

資本의 零細性 및 新製品 開發의 隘路
季節産業化 및 稼働率 低下
大企業과의 品目競爭 및 在來流通과의 摩擦

3) 地域經濟에 미치는 影響

가) 雇傭機會의 創出

가공식품회사 종사원의 77%가 농민이고 취업자의 69%가 전업취업을 하고 있으며, 호당 농외소득으로 평균 5,998.2천원을 올리고 있는 直接雇傭 效果와 농가의 경우 間接 雇傭 效果로 비단작에 비해 276.1시간/10a의 노동소요가 더 많지만 이것을 1일평균 노임으로 환산해보면 수도작 21,600

원/1일 과 비교해서 오이의 경우 35,882원/1일 으로서 農業 勞動의 效率의 利用으로 生産性 向上 效果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나) 附加價值 增大 및 地域內 還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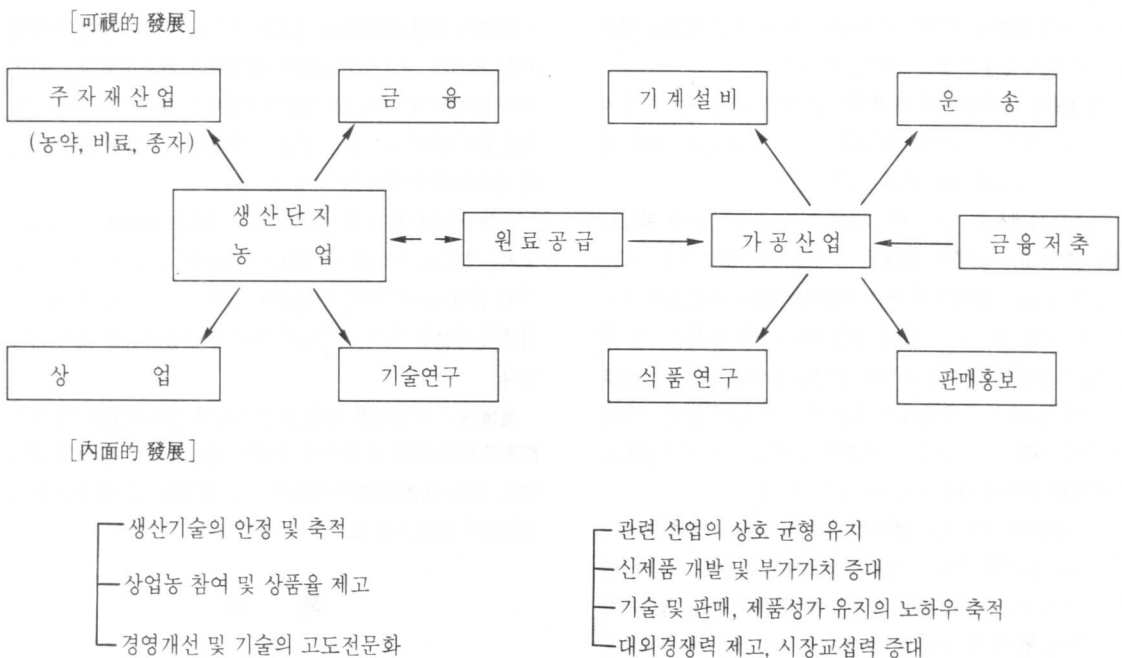
사례지역 가공공장의 부가가치 증대상황은 생과 판매시와 비교해서 219%의 상승으로 조사 되었으며 地域內 加工 原料 活用으로 原料費, 가공비 중의 人件費가 지역에 直接

還元되었고(78%), 14%가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쳤으며 역의 유출은 9%에 불과해 이는 신규작목 개발의 기초 재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된다.

다) 關聯 産業의 誘發 上昇效果

조사결과 나타난 지역 주산작목과 가공산업 연계육성을 통한 관련산업의 연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Fig. 1. 關聯産業의 상승효과



라) 地域開發의 促進

사례지역의 두메식품 설립으로 개선된 개발사업을 살펴 보면 도로포장 2.4Km, 지하수 개발 5개소, 공장시설 기반 15천평, 환경정화시설 1개소 등이다.

이와 같이 가공산업의 지역내유치는 지역 농업 농산물의 부가가치 상승과 지역내환류, 재화의 순환에 따른 각종 개발 수요의 발생으로 직접 개발의 촉진을 가져오고 소득의 향상은 도·농간 所得格差 解消로 농촌의 空洞化를 막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I. 결 론

1. 지역 주산작목 정착을 위한 효율적 운영방안

분석된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 주산작목 정착을 위한 효율적 방안을 살펴보면 생산단지 육성의 단계별 과제를 적용시켜 체계적으로 육성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은 조직단계의 동기부여 및 인적구성, 육성단계의 기술이전 및 축적, 정착단계의 판로안정과 가공연계 그리고 단지 완성단계의 고품질 유지와 명성 유지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生産部門의 方案으로 지역 주산작목 단지 육성을 위해서는 작목선정 및 규모화 하기 위한 생산자 단체의 조직화

가 필요하며, 이때 대량소비 품목은 대단위 단지로 규모화하고 생산 및 소비규모가 작은 품목은 특색있는 단지로 육성한다.

생산 농민과 가공업자의 상호계약에 의한 공동의 욕구가 충족되고 상반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생산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제3의 기관이 조정자로서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생산단지(이동, 자연부락단지)에서는 생산비 절감과 공동작업을, 생산협의회(읍면단위)에서는 품질향상과 기술정보교환, 면적의 결정역할을, 군단위 운영협의회에서는 계약의 주체로서 가격, 물량, 등급사정, 상반된 의견 절충의 역할을 분담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생산물의 품질유지와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는 농가 저장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대규모 저장, 비축 및 가공의 소요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加工部門에서는 생산 단지내에 지역내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產地 加工工場의 育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농민의 농산물 판매보장과 가격안정이라는 유리성과 가공업자는 원료 농산물을 재배 과정에서부터 품질관리를 할 수 있어 양질의 원료를 적기에 신선한 상태로 공급받음으로서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의 우위를 점할 수 있어 양자 모두에게 유리하며, 이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창출로 지역사회 발전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生産協議體 中心으로 簡易加工에 參與토록 하여 농가의 부가가치 증대를 꾀하고 가공공장에서는 노동력 소모가 많은 식품가공의 工程短縮으로 生産費 節減을 가져 올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는데, 이때 부족소요 자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경험과 기술이 더욱 축적되면 생산농민 주축의 생산협의체 중심인 加工産業 運營으로 發展시켜야 할 것이다.

농산식품가공은 노동집약산업으로서 산지가공의 성공을 위해서는 생산단지 농민을 優先 就業게 하므로서, 勞動力 確保 問題를 解決하고 제품화 과정에서는 본인의 생산물을 제품화하기 때문에 더욱 정성을 쏟게 됨으로 양질품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대기업에 비해 자본력과 기술인력 부족이 현저한 산지 공장의 신제품 개발 시험 및 가공기술 확립의 애로는 급변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 제품의 수명이 짧을 수 밖에 없는 바 정부 차원에서 농산물 가공시험소 등의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이를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

가공제품의 판매부분에는 본 연구 사례와 같이 관련업체

중 경쟁상품을 생산하지 않는 대기업과 판매원 협정을 체결하고 대기업의 유통망을 활용하면 유통경비의 절약과 생산량의 안정적 소모를 기할 수 있으며, 판매원은 자신들의 가공공장을 운영치 않아도, 다양한 품목의 식품을 유통시킬 수 있어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줄 수 있을 것이다.

더욱 바람직한 방안은 생산협의체별로 생산과 가공을 실시하고 소요되는 자금은 금융부분에서 지원하며 品目間 聯合體를 구성하여 加工技術과 經營情報를 共有하고 판매는 판매협동조합 형태로 전국단위 流通路를 確保해 나가는 것이다.

制度的 支援 部分으로 농산물 생산과 가공을 연계할 행정 지원 체계를 농림수산부내에 설치하여 가공산업의 관리업무가 보사부에, 자료 및 기술지원업무는 농림수산부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一貫된 政策 隨行이 可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식품산업의 영업 및 품목허가의 申告制 轉換으로 소규모 소자본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대기업 참여 규제영역을 설정하여 지역내 가공산업의 보호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계상의 혜택과 금융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地域内の 농산물을 原料로 活用하여 加工産業을 할 경우 農業基盤 維持와 前者에서 살펴본 제반효과가 상승할 것이므로 地域 社會開發의 側面에서 금융지원 및 세계상 特別 支援策이 講究되면 효과적일 것이다.

적 요

우리 농업의 문제점으로 規模의 零細性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참여농민의 組織化를 통해 規模化를 이룩하고, 需給의 安定을 위해서 地域 原料를 活用하는 加工産業을 連繫育成하여 附加價値 上昇과 地域內 還流로 地域經濟 活性化를 圖護하자면

1. 지역마다 특색있는 地域 主産作目を 選定하여 단지육성의 段階別 課題를 適用하므로서 專門化 시키고, 多樣한 作目を 品目別 聯合組織을 통하여 相互補完토록 하고
2. 山地加工을 活性化 시켜 생산농민의 加工參與 機會를 擴大하고 加工技術의 蓄積과 販賣의 組織化를 이룩한 중내에는 생산농민이 중심이 된 販賣協同組合 形態의 流通構造 確立으로 1차산품 생산 중심의 농업에서 2,3차산업이 同時에 關聯되는 농업으로 變貌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3. 이를 위하여 효율적 支援體制 確立과 金融, 稅制支援 및

產地공장 立地에 관한 지방 및 중앙정부의 制度的 노력이가일층 強化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학문적인 이론의 개발보다는 현재 造成 定着된 조사지역의 實證事例를 통하여 지역 주산작목 단지화와 가공연계 효과를 파악하고 분석된 요인들이 농산물의 다양성과 농산 식품개발의 潛在力이 큰 현실에서 他地域에서도 作目的 導入과 團地化의 資料로 活用되어 施行着誤를 줄이고 效果的인 定着이 迅速히 이루어 질 수 있는 方案으로 提示되기를 期待한다.

이를 위해서는 본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농업지대 및 입지에 따른 관련 작목개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 문헌

- 현공남 외 2, 농축산물 생산자 단체의 조직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
- 강봉순 외 2, 주요 생산조정 지향작목의 지역 특화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4.
- 김충실, 경북 지역 농업 사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 문경군, 문경군 종합개발 기본 구상, 1988
- 김상기 외 6, 경북지역 농산물 유통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 경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원, 1989.
-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표준소득 조사, 1986, 1992.
- 농문협, 현대농업, 소화 62. 8.
- 허신행 외 2, 채소류 농가 출 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7.
- 구천서 외 2, 경제작물의 주산지과 수익성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0.
- 정영일 외 1, 농업생산에 있어서 농민간의 협동, 한국농업정책학회, 1991.
- 이희승,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90.
- 농촌진흥청, 원예작물 기술교재, 1993.
- 농촌진흥청, 우리농산물을 이용한 조리 가공 저장법, 1993.
- 농림수산부, 농업총조사, 1990.
- 문경군, 문경군통계년보, 1990, 1991, 1992.
- 상주군, 상주군통계년보, 1990, 1991, 1992.
- 예천군, 예천군통계년보, 1990, 1991, 1992.
- 문경군청, 농어촌발전계획, 1992.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물통계년보, 1991. 1992.
- 농촌영양개선연수원, 식품분석표, 1986.
- 농림수산부, 농업중앙회, 농산물 표준출하 규격집, 1991.
- 경상북도청, 농어촌개발지표, 1990.
- 허신행 외 2, 2000년대의 채소수급 전망 및 가격안정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 고영곤 외 7, 식품 유통에 관한 학술발표회, 한국식품유통학회, 1983.
- 황기현 외 2, 장류 및 김치 유통에 관한 연구, 농림부농업경영연구소, 1971.
- 이정환 외 2, 경제사회 발전과 농림수산업의 역할 변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1.
- 성영배 외 6, 농수산물 유통실태 조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1
- 이복남, 사과 주산지 개발에 관한 연구, 농사시험연구소 사업연보, 1985.